

서울시립대학교 학내 성폭력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

문호 : 980506-1

발신 : 14대 총여학생회

수신 : 학내 성폭력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호 : 성폭력특별위원회 규정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대학 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 14대 총여학생회는 특위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몇 차례 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2-1. 특위의 위상에 대해서

특위의 규정 대상은 공간과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폭력, 그리고 학내 구성원이 학교 밖에서 피해받거나 행하는 모든 성폭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는 특위가 앞에 제기한 모두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총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위의 구성 배경이 성폭력이란 것이 한시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기 때문인 것처럼 특위와 관련된 학칙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문제 예방과 해결을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강제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의 명확한 설치 근거와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2. 특위의 집행 체계에 대해서

현재의 특위 내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회는 집행 체계 (성폭력 센터, 연구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발생 시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일을 집행하는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행 체계에서 성폭력의 예방과 발생시 접수와 실태 조사를 하며 특위의 결정된 내용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시대인) 모두가 성에 관련된 제반의 문제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제반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있는 여학생 상담실을 포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제안을 하면 현재 학내에서는 여학생들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처 하에 여학생 부처장을 인선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여학생 부처장이 집행 체계 (성폭력 연구소)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성폭력 문제와 여학생들의 취업 관련의 문제를 같이 맡아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 특위의 구성원에 대해서

현재 특위의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법학과, 철학과, 여교수, 상담원,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현재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성 단체, 의사 등 외부의 자문 위원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의 진행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2-4. 성폭력 특위 내에서 학생들의 위상

현재 특위의 규정상에서는 학생 대표의 위치가 논의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같은 의원으로써 구성되어 논의와 의결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 체계, 총여학생회, 특위의 위원에게 성폭력

문제가 접수된 경우에 모두 특위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제기한 규정과 학칙의 문제인 형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 제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내 제구성원의 인식 공유를 위하여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 직 표 >

